

GROWTH RESEARCH

2026.03.30 (월)

[AACR 산업보고서]

AACR 2026: 3대 키워드의 교집합, 그 안에 국내 기업이 있다

Analyst. 한용희, 김주형, 성인제



목차

Part 1. AACR : Oncology 자본 흐름의 선행지표

Part 2. AACR 2026 관전 포인트

Part 3. AACR 발표별 중요도

Part 4. 국내 초록 및 현황

Part 5. 관련기업

기업분석

와이바이오로직스(338840)

아이엠비디엑스(461030)

Intro

2026 AACR, 종양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 기술의 전초전

AACR 2026이 올해 4월 17일부터 개최되어 앞으로 Oncology(종양학)를 이끌 차세대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AACR(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은 글로벌 암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최신 기초·전임상 및 중개연구 성과가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세계적인 학술 무대를 제공한다.

이번 학회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① MRD/ctDNA (최소잔존질환·액체생검) ② AI in Oncology (Agentic AI·디지털 병리) ③ 차세대 ADC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이번 2026년 공식 테마인 **'Precision · Partnership · Purpose'**로 정밀한 치료 접근, 기술 간 협력, 환자 성과 중심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방증한다.

해당 키워드들에 부합하다고 해서, '학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회에서 중요하게 다룰 정도로 다른 발표 형식으로 '새로운 정보 제공'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학회의 핵심 키워드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인 아이엠비디엑스와 와이바이오로직스를 분석한다.

Part 1. AACR : Oncology 자본 흐름의 선행지표

AACR → Oncology 방향성

AACR(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은 글로벌 암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최신 기초·전임상 및 중개연구 성과가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세계적인 학술 무대를 제공한다. 동 학회는 통상 매년 4월 중순 개최된다. 행사에 앞서 각 학계 연구자와 병원/임상 연구자, 바이오 기업들은 AACR에 초록(Abstract)을 제출한다. 초록이란 연구의 핵심 데이터와 결론을 1페이지 이내로 압축한 공식 제출 문서를 의미한다.

AACR 초록의 분류 → Regular, LB/CT

AACR 초록은 보통 Regular와 Late-breaking/Clinical trials로 나뉜다. Regular abstract는 전년도 11월 중순 마감되며, 주로 초기 연구 데이터를 담아 어떤 분야가 주목받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준다. Late-breaking과 Clinical trials abstract는 최신 데이터가 늦게 완성되는 특성상 1월 초~중순까지 추가 접수되며, 보다 최근의 중요 변화와 실제 환자 데이터를 담는다. 3월 중순에는 Regular abstract 본문이 먼저 공개돼 시장의 관심 방향이 형성되고, Late-breaking과 Clinical trials는 제목만 먼저 공개된 뒤 학회 개막 시점에 본문이 나온다. 요약하면, Regular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Late-breaking과 Clinical trials는 그 방향의 강도와 실제 투자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자료다.

AACR 학회의 의의 → oncology 선행지표

이처럼 AACR은 글로벌 제약사의 BD가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트너링과 기술이전 가능성을 점검하는 핵심 학회다. 이에 따라 발표 데이터가 긍정적일 경우 기술이전(L/O) 기대도 높아질 수 있다. 동시에 AACR은 향후 1~3년간 oncology 자본과 연구 방향을 가늠하는 선행지표에 가깝다. ASCO가 후기 임상과 실제 치료 적용에 무게를 둔다면, AACR은 기술 플랫폼, 신규 기전, 초기 데이터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 더 적합하다.

* BD(Business Development) : 회사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시장을 분석하고, 기회를 발굴하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부서

글로벌 3대 암 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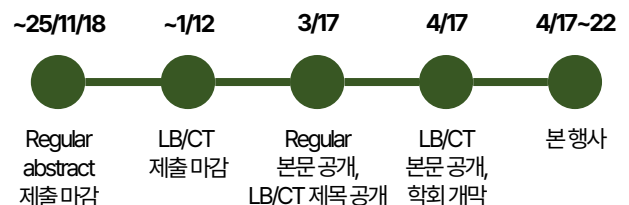
AACR 2026 일정



4월 개최

6월 개최

9~10월 개최



* LB : Late-breaking

** CT : Clinical trials

PART 2. AACR 2026 관전포인트

AACR 2026의 변화 → 실제 치료성과 향상

AACR 2026의 가장 큰 변화는 환자 맞춤형 치료와 다양한 기술들이 협력하여 실제 치료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전년도 AACR이 이론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지를 다뤘다면, 올해는 기술의 실질적 발전과 그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둔 학회 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AACR의 공식 테마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의 'Unifying Cancer Science and Medicine'이 연구와 임상 간의 연결성을 강조한 것에 비해, 이번 2026년 공식 테마인 **'Precision · Partnership · Purpose'**는 **정밀한 치료 접근, 기술 간 협력, 환자 성과 중심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ACR 2026 키워드: ① MRD/ctDNA

이번 AACR 2026의 학술적 흐름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MRD/ctDNA(최소잔존질환·액체생검) 다. AACR 차기 회장인 Keith Flaherty는 "수술 후 현미경적 잔존암을 탐지하는 능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영상 검사가 재발을 확인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혈액 기반 분자 지표가 먼저 알려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ctDNA는 보조항암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실제 임상 도구로 전환되는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를 반영하듯 AACR은 4월 18일 학회 첫 번째 세션인 Discovery Science Plenary를 'The Next Frontier in Minimal Residual Disease: Solid Tumors'로 편성했다. 단순한 연구 주제를 넘어 치료 결정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이번 학회에서 가장 많은 발표가 집중될 분야다.

** MRD(Minimal Residual Disease) : 최소잔존질환으로 암 치료 후에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암세포

*** ctDNA(circulating tumor DNA) : 순환 종양 DNA로 암세포가 혈액으로 방출하는 DNA 조각

**** ADC(Antibody-Drug Conjugate) : 항체와 화학 약물을 접합하여, 암세포를 정확히 타겟팅하고 공격하는 치료법

AACR 2026 공식 테마

AACR ANNUAL MEETING 2026

April 17-22, 2026
San Diego Convention Center
San Diego, California

Precision · Partnership · Purpose
Advancing Cancer Science to Save Lives Globally

AACR 2026 핵심 키워드



AACR 2026 키워드: ② AI in Oncology

두 번째는 AI in Oncology 다. AACR 2026 공식 프로그램에는 **AI 관련 세션이 독립 트랙으로 편성**됐다. 올해의 특징은 AI 활용 수준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 보조 도구를 넘어, AI가 스스로 연구 가설을 세우고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gentic AI' 개념이 처음으로 메인 세션에 등장한다. 디지털 병리 이미지에 AI를 결합한 멀티모달 바이오마커 분석도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암의 표현형을 훨씬 넓은 시각에서 특성화하는 차세대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AACR 2026 키워드: ③ 차세대 ADC

세 번째는 차세대 ADC 다. ADC는 이미 지난 수년간 종양학의 중심 모델리티로 자리잡았으며, '24~'25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84건의 ADC 임상시험이 새로 개시될 만큼 개발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번 **AACR 2026에서는 ADC 관련 산업 프로젝트 18건이 포스터 세션에 등장**하는데, 주목할 점은 **단일 페이로드를 넘어 듀얼-트리플 페이로드 ADC가 다수 공개되며 내성 극복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는 점이다. Araris의 ARC-401은 3개의 페이로드를 탑재한 ADC로 이번 학회에서 처음 공개되며, 플레너리 세션에서도 ADC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는 등 ADC가 학회의 중심축을 이룰 전망이다.

MRD/ctDNA Plenary 세션

SESSION PL01 - Discovery Science Plenary. The Next Frontier in Minimal Residual Disease: Solid Tumors

April 18, 2026, 4:15 PM - 6:15 PM

Hall H - Ground Level - Conven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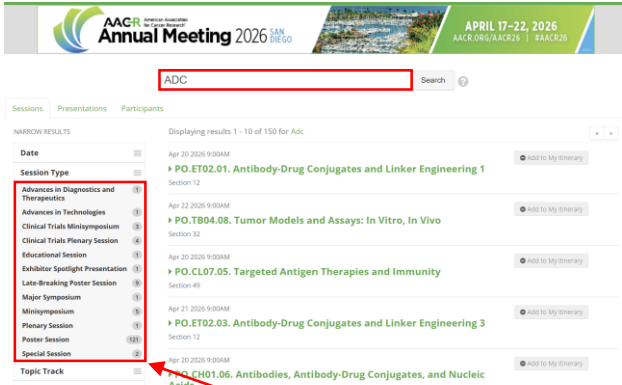
Session Type

Plenary Session
Track(s)
Prevention / Early Detection /
Intervention / Tumor Biology / Tumor
Microenvironment

7 Presentations

- 4:15 PM - 4:16 PM - **Chairperson**
Maximilian Dieh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4:15 PM - 4:20 PM - **Chair Introduction**
Maximilian Dieh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ADC 세션 갯수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AACR Annual Meeting 2026 website search results for the keyword 'ADC'. The search bar at the top shows 'ADC' entered. Below the search bar, a list of results is displayed, including sessions like 'PO.TB04.08. Tumor Models and Assays: In Vitro, In Vivo', 'PO.CL07.05. Targeted Antigen Therapies and Immunity', and 'PO.ET02.03. Antibody-Drug Conjugates and Linker Engineering 3'. A red box highlights the 'Session Type' column, which lists various session types such as 'Advances in Diagnostics and Therapeutics', 'Clinical Trials Minisymposium', 'Educational Session', 'Exhibitor Spotlight Presentation', 'Late-Breaking Poster Session', 'Major Symposium', 'Minisymposium', 'Plenary Session', 'Poster Session', and 'Special Session'. A red arrow points to the 'Plenary Session' entry in the list.

Plenary, Major Symposium 등의 주요 세션 포함 총 633개 중 150개가 ADC

자료: AACR, 그로스리서치

자료: AACR, 그로스리서치

PART 3. AACR 발표별 중요도

발표 Key Point

AACR에서 발표한다는 사실보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발표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때 ① 발표 형식 ② 데이터가 새로운가 ③ 치료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등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 현재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발표 형식에 따른 분류만 가능한 상황이다.

의미가 큰 경우

의미가 큰 발표는 Plenary(전체 회의), Major oral(주요 구두 발표), Clinical Trials Plenary(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발표), Late-breaking abstract(LBA, 최신 중요 초록) 등이 있다. 이러한 발표들은 학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이터들이며, 신선도와 주목도가 높은 연구 결과가 주로 포함된다. 특히 AACR LBA는 Proof of Concept(Proof of Concept, 새로운 기전이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도출한 사례)을 처음으로 증명하는 자리로,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해당 발표들은 올해 암 연구의 트렌드를 이끌 핵심 데이터로 공인될 가능성이 높다.

해석이 필요한 경우

해석이 필요한 발표는 일반 Oral(구두 발표), Selected poster(선정된 포스터), themed session(테마 세션)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분야 내에서 일정한 관심은 받지만, 아직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불확실한 수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표들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 이전을 위한 물밑 탐색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어, AACR의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의미가 제한적인 경우

의미가 제한적인 발표는 일반적으로 단순 Poster(연구 요약 판넬), 업데이트 없는 반복 데이터(Follow-up), 그리고 환자 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한 임상 결과(Readout) 등으로 분류된다. 2026년 AACR의 경우, 수백개의 세션과 7,400개 이상 의초록이 발표될 예정이므로 비교적 흔한 발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 형식별 데이터 가치 판별 가이드

구분	주요 발표 형식	중요도	특징
1. 의미가 큰 경우	Plenary, Major oral, Clinical Trials Plenary, Late-breaking abstract(LBA)	★★★	학계/시장 트렌드 주도 - PoC(개념 입증) 첫 공개로 파급력이 매우 큼 - 신선하고 주목도가 높은 핵심 데이터 트랙
2.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일반 Oral, Selected poster, Themed session	★★	AACR의 정체성이자 '꽃' - 분야 내 관심은 높으나 기전의 설득력과 바이오마커 분석이 필수적 - 빅파마의 기술이전(L/O) 탐색전이 치열
3. 의미는 제한적인 경우	단순 Poster, 업데이트 없는 반복 데이터, 환자 수가 매우 적은 Readout	★	단순 참여 및 생존 신고 - 기존 데이터와 차별화된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확인

자료: 그로스리서치

PART 4. 국내 초록 및 현황

새로운 정보 제공 여부 → 발표의 핵심

Verismo Therapeutics : Plenary급 평가

현재 AACR 2026 초록 제목과 일부 본문이 공개된 상황으로,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의 확인은 학회 개막 이후 가능하다. 다만 발표 형식 자체가 데이터의 중요도를 가늠하는 유효한 지표가 되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발표 형식 기준으로 국내 참가 기업을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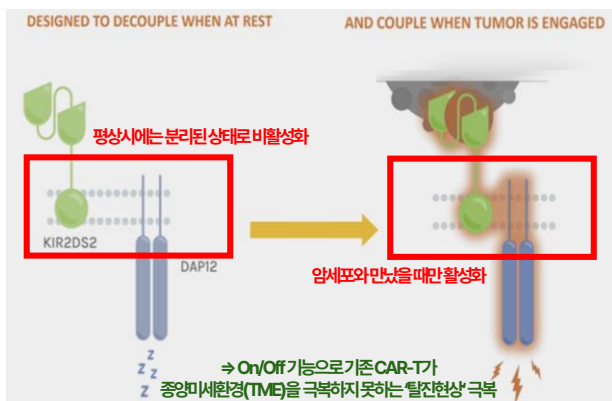
1) 의미가 큰 발표 (Clinical Trials Plenary 구두 발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발표로는 HLBI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테라퓨틱스 (Verismo Therapeutics)를 꼽을 수 있다. 베리스모는 고형암 대상 CAR-T 치료제 'SynKIR-110'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Clinical Trials Plenary 세션에서 구두 발표할 예정으로, 이는 단순 채택을 넘어 '이 데이터는 많은 사람이 봐야 한다'는 학회의 판단이 반영된 최고 등급의 발표 형식이다. SynKIR-110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기존에 허가된 CAR-T 치료제가 모두 혈액암에 국한된 반면, SynKIR-110은 메소텔린이 발현된 고형암(홍맥종피종·난소암·담관암 등)을 타겟으로 한다. 둘째, 기존 CAR-T의 치명적 약점인 T세포 탈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NK세포의 신호 전달 방식을 모방, 암세포 사멸 후 T세포가 휴식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임상에서 장기적 효능 유지라는 PoC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2) 해석이 필요한 중요한 발표 (일반 구두 발표)

구두 발표(Oral Presentation) 기준으로는 국내 기업에서 알지노믹스와 아이엠비디엑스 두 곳이 선정됐으며, 해당 기업의 연구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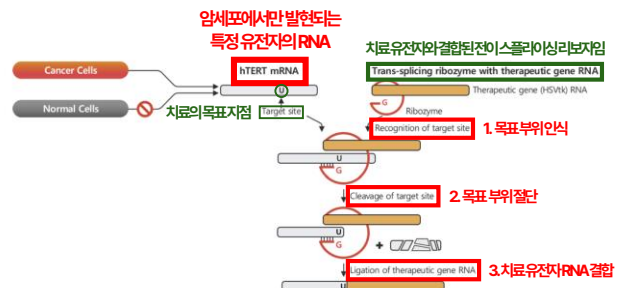
SynKIR-110의 플랫폼, KIR-CAR의 기전



자료:HLB, 그로스리서치

그로스리서치 GROWTH RESEARCH

RZ-001의 기전



⇒ 암세포를 정확하게 타겟으로 하고, 세포 내에서 유전자 편집을 통해 직접적인 치료를 유도하는 방식

* 리보자임: RNA 분자로서 효소 역할을 수행

자료:알지노믹스, 그로스리서치

**알지노믹스
: Oral 발표**

알지노믹스는 RNA 치환효소 기술 기반 항암 유전자치료제 'RZ-001'의 간세포암 임상 1b/2a 중간 결과를 구두 발표한다. RZ-001은 전체 암세포종의 80% 이상에서 발현되는 hTERT(텔로머라제)를 타겟으로 하며, 표준치료제(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 병용 요법으로 임상이 진행 중이다. 반응률이 20~30% 수준에 머무는 간암 표준치료의 미충족 수요를 겨냥한다는 점, 암세포 사멸과 면역세포 침투를 동시에 유도하는 복합 기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특히 이번 임상에서 간암 효과가 입증될 경우 hTERT가 발현되는 다른 암종으로의 적응증 확장이 가능해져, 단순한 파이프라인 검증을 넘어 동사의 RNA 치환 기술 플랫폼 전체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된다.

**아이엠비디엑스
: Oral 발표**

아이엠비디엑스는 자사의 캔서프로파일러(CancerProfiler)를 활용한 WES 기반 국산 HRD 분석 연구 결과를 구두 발표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Myriad Genetics가 독점해온 HRD 진단 시장에 검증 가능한 알고리즘 기반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기존 Myriad 검사는 HRD 양성 판정의 근거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둘째, 기술적 난이도 측면에서 HRD 진단은 암세포가 DNA를 복구하지 못해 남긴 수만 개의 유전체 불안정성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고난이도 작업으로, 단순 변이 검출(SNV) 수준의 액체생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동사는 WES 데이터를 활용해 이 복잡한 패턴을 정밀하게 읽어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기존 표준(Myriad)과의 대등성 및 우월성을 임상 수치로 입증했다. 셋째, 기존 HRD 검사가 조직생검을 요구하던 것과 달리 혈액만으로 PARP 저해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액체생검 기반 HRD 검사로의 확장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3) 포스터 발표 기업 중 주목해야 할 발표
**Poster 발표
: 오름테라퓨틱스,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와이바이오로직스**

포스터 발표 기업 중에서도 주목할 곳들이 있다. 오름테라퓨틱스는 차세대 모달리티인 DAC 'ORM-1153'의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며 DAC의 임상 가능성을 평가받고, 리가켄바이오는 ADC 파이프라인 두 건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ABL206·ABL209의 미국 임상 1상 IND 승인 직후 타이밍에 글로벌 무대에 데이터를 공개하며,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이중항체에 사이토카인을 결합한 삼중 타겟 항암제 AR170·AR166을 포함한 멀티앱카인 관련 초록 3건을 발표해 차별화된 모달리티로서의 전임상 유효성을 검증받는다.

Part 5. 관련기업

AACR 관련 기업

(단위 : 억원)

기업명	기업개요	시가총액
아이엠비디엑스	· '18년 설립, '24년 코스닥 상장 · 주요 사업 : 액체생검 기술에 기반해 암발생 전주기에 걸쳐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및 조기진단 · 매출 비중 : 프로파일링 64.8%, 스크리닝 18.1%, 재발모니터링 13.6%, 알파리퀴드 상품 및 기타 3.5% · 동사의 CancerProfiler 플랫폼을 이용해 난소암 환자의 HRD 지표 분석을 발표	940
와이바이오로직스	· '07년 설립, '23년 코스닥 상장 · 주요 사업 :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의약품 개발 · 매출 비중 : 기술이전 58%, 계약연구 서비스 40%, 공동연구 2% · 멀티앵카인 관련 초록 3개(AR170, AR166, 최적화된 IL-2 변형체 후보 관련)와 이를 적용한 삼중타깃 면역항암제 후보들의 전임상 데이터 3건을 포스터 발표	5,305
알지노믹스	· '17년 설립, '25년 코스닥 상장 · 주요 사업 : RNA 치환효소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 및 기술이전 · 매출 비중 : 기술이전 88.4%, 연구용역 등 10.5% · 표준치료제(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와 병용투여한 RZ-001 임상 1b/2a 중간 결과 AACR에서 구두 발표	32,118
리가캠바이오	· '06년 설립, '13년 코스닥 상장 · 주요 사업 : ADC, 면역항암제, 항생제, 항섬유화제 등 신약개발 및 기술이전 · 매출 비중 : 기술이전 100% · LCB14-2524, LCB14-2516 두 가지 차세대 ADC 후보물질을 AACR에서 발표 · LCB14-2524 : ADCC강화 항체 + LBG linker + MMAF payload · LCB14-2516 : 안전성 개선항체 + PBD prodrug payload	78,163
에이비엘바이오	· '16년 설립, '18년 코스닥 상장 · 주요 사업 : 이중항체 플랫폼 'Grabody™' 를 바탕으로 신약개발 및 기술이전 · 매출 비중 : 기술이전 100% · 차세대 이중항체 ADC 후보물질인 ABL206, ABL209를 AACR에서 발표 · 모두 임상 1상 IND 받은 직후라는 점에서 유의미	100,833
오름테라퓨틱	· '16년 설립, '25년 코스닥 상장 · 주요 사업 : 차세대 TPD²-GSPT1 플랫폼을 통해 신약개발 및 기술이전 · 신규 DAC 후보물질인 ORM-1153 전임상 데이터 AACR에서 발표 · CD123 타깃 DAC 후보물질로, GSPT1 분해라는 새로운 기전을 도입한 치료 전략 · 향후 임상 개발 진입(IND 제출)할 계획 중	23,865

와이바이오로직스(338840)

Why 다중항체와 사이토카인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

투자포인트

국내 최고 수준 항체 플랫폼 보유

Ymax®-ABL 플랫폼으로 차세대 암 치료 혁신까지

와이바이오로직스는 2007년 설립되어 2023년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완전인간항체 디스커버리(Ymax®-ABL)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항체 라이브러리(Antibody Library)란, 서로 다른 서열을 가진 수십억~수천억 종의 항체 유전자 집합체로, 이 풀(pool)에서 표적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후보를 선별할 수 있다. 동사는 큰 규모의 항체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항체 후보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며, **Multi-AbKine(다중항체&사이토카인)**을 개발해 키트루다 불응 환자까지 적응증을 확장 중이다.

시스 액팅으로 글로벌 선두 약물 너머로

시스-액팅 기술: 정확한 면역 세포 타겟팅으로 AACR에서 결과를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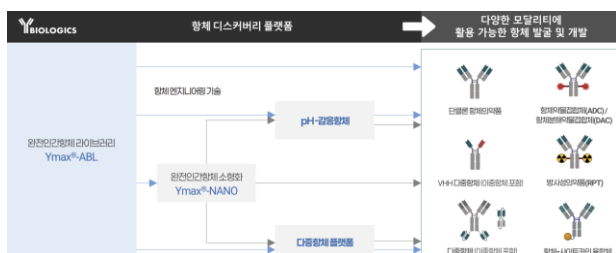
동사는 이번 AACR에서 '멀티앵카인' 기반 파이프라인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해, **AR170(PD-1xVEGFxIL2v)과 AR166(PD-1xLAG-3xIL2v)의 유의미한 효능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사이토카인 치료제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기능은 뛰어나지만, 정상 세포에도 무분별하게 결합하여 심각한 독성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동사의 시스-액팅(cis-acting)기술은 항체와 사이토카인을 결합하여 정확하게 면역 세포에만 사이토카인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T세포 기억 기능을 부여해 재발 우려를 막고 독성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기전으로 글로벌 선두 약물인 아케소&써밋의 이보네시맵과 이노벤프의 IBI-363 임상 결과를 뛰어넘는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ADC 시장보다 큰 이중항체 딜 규모

AACR을 점프대로: 자체 파이프라인 기반 글로벌 빅딜로 체질 전환

동사는 과거 **항체 발굴 중심의 보수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2025년을 기점으로 자체 파이프라인 기반의 글로벌 빅딜로 사업 전략을 완전히 전환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이중항체 딜 규모는 약 40조원에 달하며, 선급금만 약 7,000억원에서 2조원에 이른다. 이는 ADC 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이는 국내 바이오텍이 단일 기술이전 계약에서 받은 최고 수준 선급금인 약 1,300억 내외보다 훨씬 크다. **동사가 AACR에서 데이터를 발표해 파이프라인 가치를 입증하고, 내년 중 조 단위 글로벌 빅딜을 완성하는 것을 예상한다.**

와이바이오로직스 항체 플랫폼



와이바이오로직스 파이프라인 현황

모달리티	프로젝트명	타겟	적용종	Discovery	Pre-clinical	IND-enabling	Phase-1/2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							
Multi-AbKine	AR166	비공개	고형암				
	AR169	비공개	고형암				
	AR170	PD-1, VEGF IL 수용체	고형암				
pH-결합 ADC	AR153	B7-H3	고형암				
면역조절 단일항체 파이프라인							
항암억제제	YBL-006	PD-1	고형암				
단클론 항체	YBL-011	LAG-3	고형암				
	AR062	CD39	고형암				

아이엠비디엑스(461030)

진단 기업으로서 AACR 구두발표 선정: 플랫폼 기술력의 글로벌 공인

투자포인트

액체생검 기반
정밀의료 및
조기진단 기업

액체생검 기술을 이용한 정밀의료·조기진단 기업.

아이엠비디엑스는 2018년 설립되어 2024년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당사는 **액체생검기술을 이용해 암발생 전주기에 걸쳐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와 조기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2025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프로파일링 64.8%, 스크리닝 18.1%, 재발모니터링 13.6%, 알파리퀴드 상품 및 기타 3.5%으로 구성되며, 매출액 53억(YoY +56.4%) 영업이익 -86억(적자지속)을 기록했다.

구두발표 선정
의미

진단 기업으로서의 AACR 구두발표 선정,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

동사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팀과 공동 수행한 **난소암 HRD 연구를 이번 AACR에서 구두발표로 발표**한다. AACR 구두발표는 수천 건의 투고 초록 중 학술적 완성도와 임상적 파급력이 높다고 평가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자리로, **진단 기업의 연구가 선정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드문 일**이다. AACR의 핵심 청중은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자와 임상의로, 미국 최대 시 정밀의료 진단 기업인 **Tempus** **조차 AACR 2025에서 18개 초록 중 구두발표는 단 1건**에 그쳤다. 동사가 이 자리에 선정된 것은 이번 연구가 단순 검사 성능 검증을 넘어 **임상 현장의 처방 기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플랫폼 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학계의 공식 인정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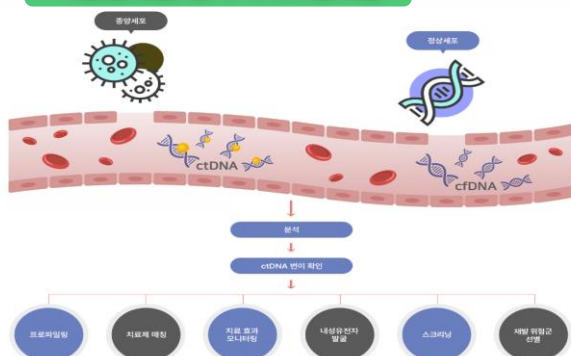
WES 기반
HRD 지표 일관된
예측력 증명

난소암 치료의 '미싱 링크'를 채우다. 처방 기준을 바꾸는 데이터.

난소암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이 잦은 암종으로, **PARP 저해제(린파자제졸라)의 등장**이 재발 억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그러나 이 약제는 **HRD 양성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어 처방 전 반드시 HRD 검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임상 현장이 비용 문제로 HRD의 일부에 불과한 BRCA 변이만을 처방 기준으로 써왔다는 점이다. BRCA 변이 환자는 전체 난소암의 15~20%에 불과해, 약효를 볼 수 있는 HRD 양성 환자(전체의 약 50%)의 절반 이상이 치료 기회를 잃어온 셈이다.

동사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재발 후 2차 치료에서 BRCA 단독 변이의 예측력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반면, **WES 기반 HRD 지표는 일관된 예측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실제 환자 데이터로 증명**했다. 동시에 이 HRD 검사를 **동사 진단도구인 CancerProfiler로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해 **해외 독점 검사 대체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동사의 진단 도구가 **기존 처방 기준 자체를 바꾸는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AACR은 이를 신약 임상 데이터에 준하는 임상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로 평가해 구두발표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플랫폼: 알파리퀴드 플랫폼



AACR 2026 아이엠비디엑스 발표 제목



자료 : 아이엠비디엑스, 그로스리서치

그로스리서치 GROWTH RESEARCH

자료 : AACR, 그로스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일부 기업은 당사의 관계사와 IR 계약을 맺고 있으나, 동 자료는 관계사의 활동과 무관하게 독립적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그로쓰리서치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